

072521 주일설교 “두려워말라” 요한복음(John) 6:16-21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험에 빠진 일이 2번 있습니다. 한번은 예수님께서 배 아래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성경말씀인 ”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일” 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계셔도 풍랑은 있구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시지 않아도 인생에 풍랑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거죠! 예수님께서 배에 안계실 때에만 풍랑이 일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자연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경고한 말세의 재앙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를 연상케하는 장마비, 태풍과 지진, 산불과 역대급 무더위... 여전히 창궐하는 코로나19, 셀 수없이 많은 뉴스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밤사이 안녕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때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항해는 순항입니까? 아니면 풍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어두요, 풍랑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어 닦쳤던 이 풍랑이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다(당시 사람들에게겐 하도 커서 바다라고 불렀던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죠) 분명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와중에 만난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거죠. 그러면서 여기를 건너가게끔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도 잘 지키고, 말씀도 정기적으로 읽고, 기도도 매일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당하는 어려움이 있구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같은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참 쉽지요?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억울할까요? 보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더 힘들어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가 있어요. 믿음 안에 서 있던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실까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거든요. 바라는 여러분도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계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삶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풍랑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만난 스톰이었던 것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길,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 이 풍랑의 교훈은 뭡까요?

오늘 말씀인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이야기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혼자 기도하시러 가셨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고 계세요. 그 때 바다는 풍랑이 일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웠다고 했고, 예수님을 보고는 또 한번 놀랐죠! 뭐라면서 놀랐죠? 네, “유령이다!” 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다른 제자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다가 주님께 시선을 두었을 때는 물 속에 빠지지 않았지만, 풍랑을 보니까 무섭거든요! 주님께 대한 시선을 놓치고 나니까 물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상

항과 현실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할 때는 주님께 시선을 다시 뒤야 합니다.

금기야 베드로는 물에 빠져 허덕이면서 “주여 나를 구원 하소서” 하고 믿음 없는 자임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넘어진 아이 손을 잡아 일으키듯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앞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었죠)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니라.”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베푸신 은혜가 잊혀지기 쉽다는 거죠. 심지어, 오래전 일도 아니고, 한달전 일주일 전 일이 아니고, 방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쉽게 둔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니라...”

여기서 둔해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졌다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다시말해서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들이거든요!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풍랑이 아니라 자꾸만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젠 모든 것이 끝장이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믿음”

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가?” 그렇다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결국 이 풍랑도 잠잠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노력을 두어야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도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지 몰라요.

폭풍이 것처럼 순식간에 완전하게 잔잔해지는 광경은 제자들 평생에 결코 본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앞에서 질병도 다스리시는 권세, 귀신도 다스리시는 권세, 자연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질병도 주님께 순종하고, 귀신도 끄떡 못하고, 자연도 순종하는데, 구체적으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왜 인간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 할까요? 순종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풍파가 없기만을, 혹은 인생에 잔잔함 만 있기를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과연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관심은 풍랑 땀에 죽겠는데, 그래서 풍랑만 없으면 좋겠는데! 잔잔함만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간구하는지를 지켜 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을 보면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결론을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개역한글에서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했다고 했는데, 원어성경에는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의미에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깨닫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겪는 인생의 풍랑, 그 결론도 오늘 말씀처럼 찬양으로 끝나길 소원합니다. 경제가 힘들

고, 코로나로 불편하고, 자녀들이 말 안들어서 지쳐도, 결국에 가서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함으로 향하길 소원합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 사회자이자 개그맨 주영훈씨가 전에 악기점에서 악기를 구입하는데 악기점에 계신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요즘에 교회 아니면 다 굶어 죽어요. 요즘 사용하는 모든 악기 다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의 모든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거였구나. ‘교회 아니면 죽습니다’가 맞는 거였구나. 그리고 인간이 가진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고 하는데, 그 악기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 이외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를 그 악기점에 계신 사장님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물론 예배시간엔 찬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교훈하듯이 어려운 환경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풍랑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여 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풍랑이 있어도 혹은 풍랑이 없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풍랑도 잠잠케 될 뿐 아니라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이라 하며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